

작품 내용

제 목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취소하며 배운 진짜 스펙
내 용	새벽 2시, 모니터 불빛이 좁은 방을 밝히고 있었다. 면접에 제출할 직무 포트폴리오 마감에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참이었다. 내용은 얼추 채워졌지만,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을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포그래픽 하나가 절실했다. 부족한 디자인 실력으로 무료 아이콘 사이트를 전전했지만, 내 기획의 의도를 완벽하게 대변해 줄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에 검색창을 헤매던 중, 우연히 한 개인 블로그에서 완벽한 다이어그램을 발견했다. 누군가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만들어둔 자료였다. 워터마크도 없었고, 우클릭 방지도 해제되어 있었다. 마우스를 왼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버튼을 향했다. 이것만 캡처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슬쩍 넣을까? 상업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취업 면접용으로 한 번 쓰고 말 텐데 누가 알겠어. 높은 경쟁률 앞에서 나의 알팍한 양심은 합격이라는 간절함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만 누르면,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고단함과 압박감이 마법처럼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을 주려는 순간, 과거의 뼈아픈 기억이 모니터 화면 위로 겹쳐졌다. 팀원들과 오랜기간 함께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공모전 기획안이 있었다. 여러장의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완성한 우리의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우리의 아이디어와 슬로건을 단어만 바꿔 버것이 자신의 과제물로 올려둔 것을 보았다. 출처는 없었고, 그 아래에는 대단하다는 칭찬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나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내 노력의 가치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이었다. 남의 수고를 너무도 쉽게 훔쳐 가는 타인의 무감각에 진저리를 쳤던 나였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지자, 화면 속 저장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내가 하려는 행동이, 내 기획안을 도용했던 그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이기심과 무엇이 다를까. 모니터 속 다이어그램은 나에게 검색 한 번으로 얻어걸린 요행일지 모르지만, 이를 만든 원작자에게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빚어낸 치열한 고민의 결정체일 것이다. 나는 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투박하더라도 내가 만든 표와 합법적인 무료 폰트들로 그 자리를 묵묵히 채워 넣었다. 남의 것을 빌려온 시각적인 화려함은 덜할지 몰라도,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내 양심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움 없이 완벽했다. 취업 준비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경쟁 속에 놓여 있다 보면, 종종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합격을 위한 편법이나 취준생의 어쩔 수 없는 처지로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노력과 땀방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머지않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일터에 나갈 예비 직장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의 시작이다. 타인의 창작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만들어낼 업무 성과와 창작물 역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력서에 적어 넣는 화려한 스펙 한 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보고 예우할 줄 아는 태도가 아닐까. 오늘도 나는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마우스를 멈추고, 묵묵히 정당한 길을 걷는 법을 배운다.